

성명	이아영	수험기간	2023.08~2025.07.
학교	서강대학교	전공	물리/컴퓨터공학
키워드	기득 민소고득점 전체 27등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62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이아영입니다.

2차 기득합이며 2023년 8월 졸업 후 약 2년 공부하였습니다.

1차는 졸업 후 시간이 너무 없다고 판단해서 남들과 좀 다른 실험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참고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수기들은 여럿 읽어보시고 '공통되는 부분'에 집중하여 공부방법을 차용하심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동차 (특하:39.66-과락/ 상표:55/ 민소:59.33/ 저작: 60.66// 평: 51.33/ 컷: 55.22)

기득 (특하:54.66/ 상표:56.33/ 민소:62/ 저작:59.66// 평: 57.66/ 컷: 53)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5점	97.5점	67.5점

-민법- <점수: 95점>

【강의 및 교재】

기본강의 8배속 정도 날림으로 듣고 정독 한번만 하고 ox 문제집 풀었다가 너무 많이 틀려서 아무도 안할 것 같은 민법 정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정리본 꾸준히 보면서 날짜별로, 주제별로, 부정적 표현, 색을 달리하여 형광펜 칠해두니 숲이 보이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평소 정리본 공부가 잘 맞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 공부할것같습니다.

【시기별 공부】

1~3월	4~6월	7~9월	10~12월	1~2월
-	-	기본강의, 정리본	40일 한세트 돌림	틀린문제, 최종정리

【회독 방법】

기본서 10일 ox 10일 기본서 10일 객관식문제집 10일을 한세트로 하여 시험 전까지 무한 반복했습니다. 앞부분 보다 뒷부분 까먹는 불상사 방지를 위해 페이지 일의자릿수 기준으로 오늘은 n0페이지, 내일은 n1페이지 목표로하여 풀었습니다. (특상디객도 같은방법 효과 좋음)

【공부 시 주의할 점】

주체와 시기 등도 정말 중요하지만 원칙과 예외, 예외의 조건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여 확실히 알아야 흔히 말하는 리걸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게 되고, 모르는 내용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어느정도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7.5점>

【강의 및 교재】

대부분의 기본 강의를 날림으로 듣고 조문을 정말 많이 읽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3법 비교표(김영남 변리사님)를 처음에는 15일에 한번 읽다가 갈수록 횟수를 줄여가고 밑줄치다가 빈칸도 셀프로 뚫어보고 나중에는 조문 번호 및 간단 내용 (55조- 국내우주) 만 보고 나머지 항을 순서 무관히 컴퓨터에 타이핑해보면서 완벽에 가깝게 외웠습니다. 1차가 어려운 점이 첨표하나 차이 같은 걸로도 내용이 달라질수 있고 수험생으로서는 그 차이를 교수만큼 잘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결어구(그리고, 그러나, ','), 육하원칙(누가 어디서 무엇을 등) 회독마다 테마를 정해서 집중해서 보고, 틀린건 누적적으로 복습했습니다.

객관식을 풀 때는 문제별로 틀린 문제를 모으기보다 선택지 별로 모호하게 판단되거나 틀린걸 모아서 양을 줄여나갔습니다.

【특허법】

기본강의 반정도 까지만 똑바로 듣고 그 이후는 6배속 정도로 날림으로 들었고, 기본서 정독은 안했습니다.

이전 시험이 시행령과 규칙 부분이 많이 나와 한 선택지라도 지우면 답 고를 확률 올라갈거라 생각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따로 정리했었는데 생각보다 시험에 나올만해보이는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상표 디보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볼 때 3 시간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엔 공부하다 심심할 때 몇 번 봤습니다.

【상표법】

기본강의는 듣지 않고 객관식을 풀다가 판례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기본서를 회독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생각되어서 2차 판례집을 읽었습니다. 원문은 읽지않고요 요약된 핵심의 느낌만 익힌다는 생각으로 하루 15분 읽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최종강의만 듣고 최종강의 자료만 읽었습니다. 기출 10개년만 풀었습니다.

심사기준이 꽤 나오는 것 같고, 그림책 같기도 해서 공부하기 싫을 때 읽었습니다.

【공부 시 주의할 점】

산재는 특히 조문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조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최우선인바, 조문의 회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는 오픈카톡방이 익명의 다양한 테마로 운영됩니다. 저는 밥 먹는 중에 실경/공부할경으로 오픈 카톡방을 주로 읽었는데 놀게된다고 이를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디만,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않고/보지않고, 남들이 틀린 문제, 모른다고 올린 문제를 내가 아는지 확인하는 용으로 쓰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사님들 계신 방에 있으면 좋은 자료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남 변리사님이 운영하는 오픈 카톡방에 있었으며, 변리사님께서 질문에 정말 기계신가.. 싶을 정도로 잘 답변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저정도는 되어야 합격하는구나 싶어서 자극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67.5점>

【강의 및 교재】

과목당 10문제 씩이기도 하고 1차때 보면 안 볼 과목들이라는 생각에 세 과목 중 가장 공부 비율을 적게 가져갔습니다. 물리와 화학은 자신있는 과목이라 변리사 강의를 듣지 않았고(결과와 다름) 생물은 듣다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 포기했고, 유일하게 박준희 강사님의 지구과학만 너무 재밌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물리】(2/10)

나름 물리학과 높은 성적 졸업이었고 기출, 모의고사도 많이틀려도 2개였는데 법과목 보고 지금까지 많이틀려도 5개다 싶어서 긴장이 확 풀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공부는 peet, mdeet 문제집으로 했고, 다른 변리사 문제집은 솔직히 쉬워서 그런 거였는데 빛을 못봐서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의 문제가 다 어디서 본 문제이긴 해서 peet mdeet 문제집을 사용해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화학】(5/10)

peet mdeet 문제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변리사 학원 교재는 해설이 좋지 않아 선택했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스킵했습니다. 해설 퀄리티가 좋아 주변의 다른 분들도 책을 빌릴 정도였습니다. 변리사 수험판의 화학 교재 해설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방향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10/10)

원래 싫어하는 과목이어서 어느정도 버릴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몇 번은 기본서를 읽다가 좀 동떨어졌다/양에 비해 가성비 가 떨어진다 싶어서 엘지 사이언스 랜드 유튜브 동요 영상 열심히 보다가 마지막 일주일에 갑자기 불안해져서 생물 객관식 문제집 어려워보이는 단원만 풀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10/10)

박준희 강사님의 기본서와 객관식을 번갈아 가며 시험 전까지 하루 1시간씩 보았습니다.

기본서는 형광펜으로 칠해보고 검정색으로 빈칸도 뚫고 지워가며 회독했습니다.

박준희 강사님이 나름의 외우는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를 또 재밌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강의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공부 시 주의할 점】

저처럼 시험장에서 법과목 잘봤다고 긴장 푸시지 말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 주력은 물리와 화학이고 가장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았음에도 생물과 지구과학이 점수를 많이 올려준 것처럼 몇 개를 버렸으니까 그 부분 공부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지양하시길 권합니다.

-기타-

【시간 관리】

7시부터 12시까지, 시험 전 한달은 7시부터 11시 점심 따로 먹지 않고 중간에 샤워+저녁 1시간 가졌고 별도 쉬는 시간은 갖지 않았는데 호흡 짧게 1시간 단위 과목을 바꾸면 길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시~12시 : 산재 민특상 1시간씩, 오답노트 스터디, 부족해보이는 과목 1시간

12시~5시 : 민법

6시~10시 : 물화생지 1시간씩

10시~12시: 조문공부 1시간, 부족한 과목 1시간

【체력 관리】

1차는 별도로 운동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소에 수영, 헬스 등을 꾸준히 해왔었기에 체력에 큰 문제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3-4시간은 쉬었습니다.

【문제풀이 방법】

문제별이 아닌 **문제 선택지 별로 다시 볼 것을 표시**했고, 앞서 말한 것처럼 페이지 수의 1의 자릿수 기준으로 회독하여 앞부분을 보는 동안 뒷부분 까먹고, 뒷부분 보는동안 앞부분을 까먹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ox를 확실히 알더라도 근거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 모르는 것으로 보는 등 엄격하게 아는지 여부를 따졌고, 기본서를 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객관식 문제집은 해설이 자세한가 1순위로 두고 골랐습니다.

【스터디】

틀린 것을 다시 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날 틀린 오답을 상대에게 말하며 말하는 나도 복습하고 상대도 남이 틀릴만한 양질의 문제를 접하는 취지의 스터디를 했습니다.

오답을 혼자 복습하면 집중도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62점	54.66점	56.33점	59.66점

-민사소송법-

<점수: 62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이창한 강사님 커리큘럼을 따랐습니다. 다만 제가 성격이 급한편이라 강의가 나오는걸 기다리기 힘든 경우에는 전년도 강의를 섞어 들었습니다.

강사님께서 1타로 오래 계셔서 그런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은 이런거 궁금해하는 사람 있다며 귀신같이 바로 말씀해주셔서 좋았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매년 좋은 이슈, 안좋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1타 강사를 듣는편이 오랫동안 1타를 한 내공과 다수가 듣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교재**

기본서- 통합 교재를 봤습니다.

사례풀이- 이창한 강사님의 사례집과 기출 핸드북을 이용했습니다.

조문집-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법전을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 조문을 빨리 찾기 위해 위치를 외운다는 의미에서 법전을 보았는데, 조문 찾으려 떨어질 확률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차라리 부수적 설명이 써있는 강사님의 조문집을 보는 편이 더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4년 1~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	기본, 사례강의	기초GS, 실전A	실전B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실전A		실전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기본강의를 시작해 3월 중순까지 기본강의를 듣고, 4월 전까지 사례강의를 마쳤습니다. 3일정도를 써서 전년도 기초GS를 풀고, GS A형과 B형을 기득과 같은 시기에 들었습니다. 기본서 회독은 총 13회독, 사례집 회독은 총 8회독 했고, 결과는 59.33 받았습니다.

▪ **기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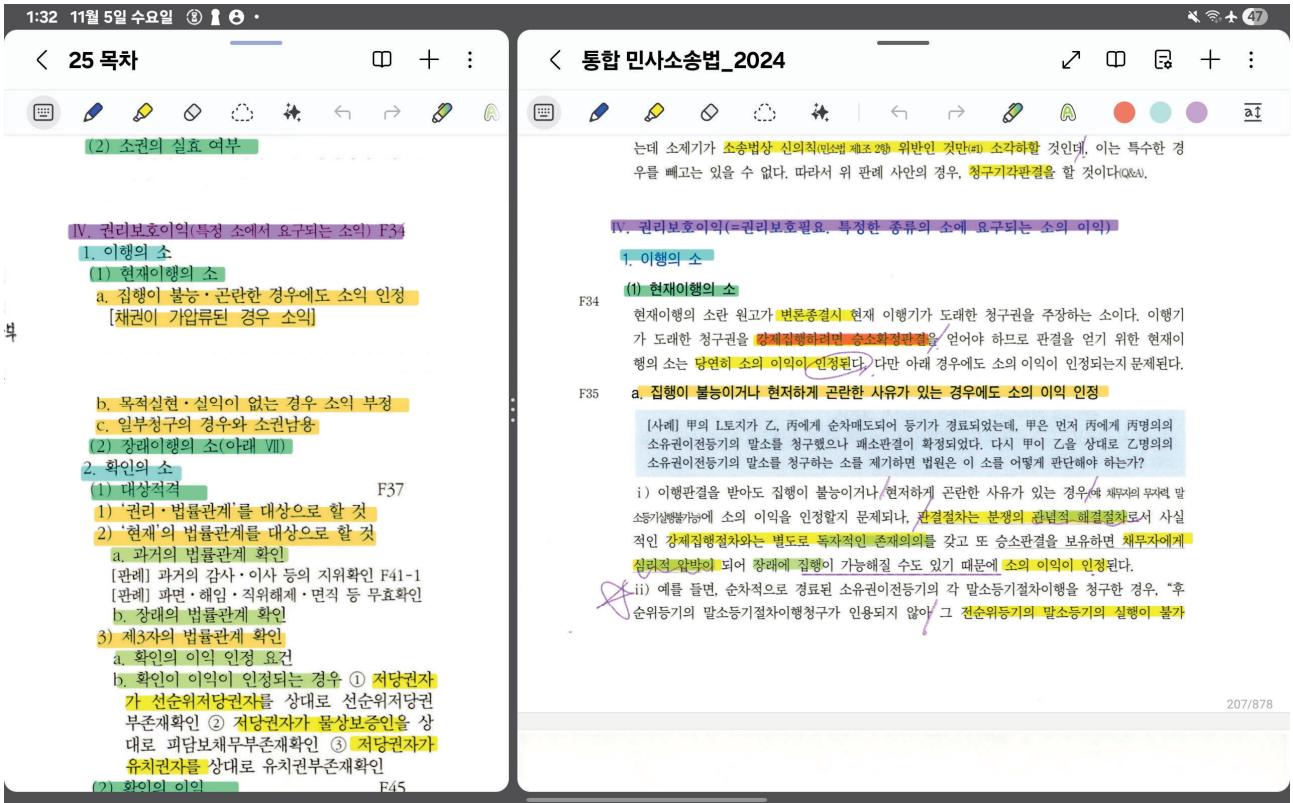
이창한 강사님 심화강의를 듣고, 기본서 회독을 매일하면서 핸드북과 사례집을 번갈아 가며 보았습니다. 각자 한번의 회독당 10일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 회독 방법

내용이 익숙치 않았을 때에는 숲보다 나무를 먼저 익히기 위해 패드로 통합을 읽으면서 키워드, **중요 문구들을 검은색으로 칠해버리고 회독시마다 뭐였지 떠올렸습니다.** 다 안다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며 회독이 가능해 그냥 회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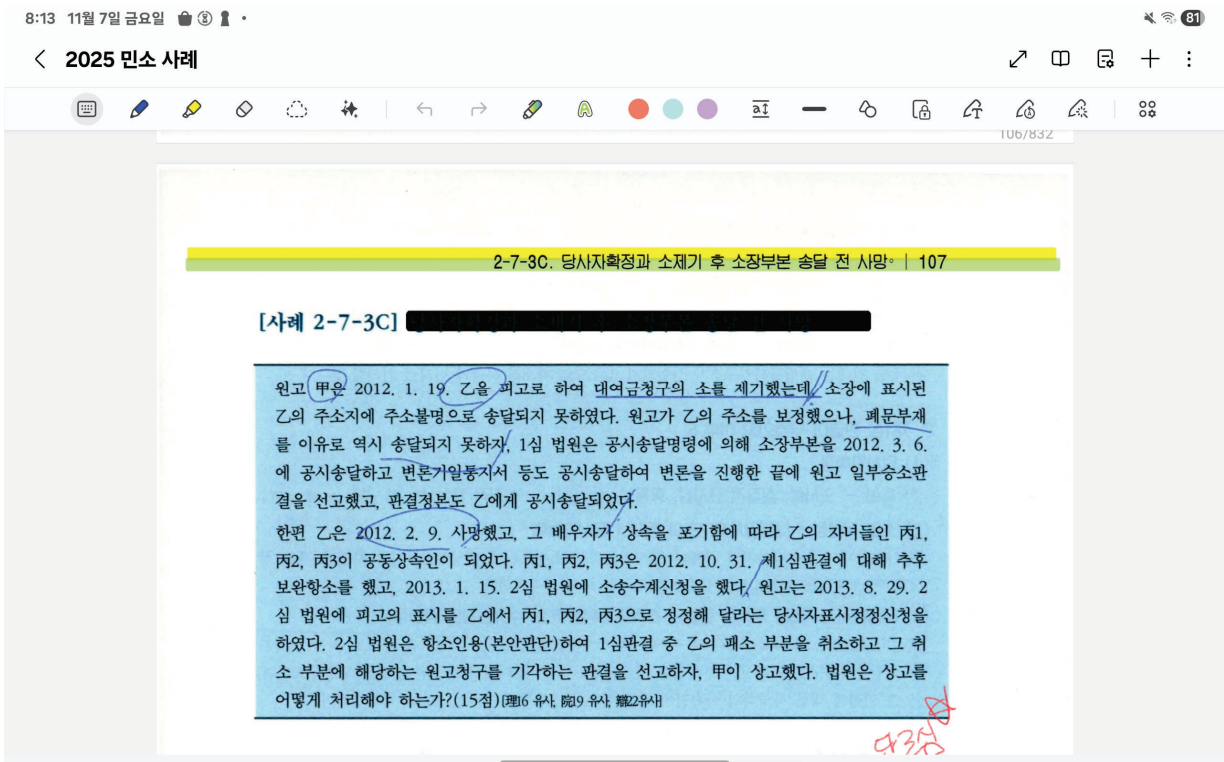
내용이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숲을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통합이 목차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흔히 본문 내용에 목차별로 색을 달리하여 형광펜 칠하는 방식으로 가독성을 확보하는데 저는 목차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본문과 형광펜 색을 맞췄습니다. 목차에 힌트가 될만한 것들(학설, 판례 등)은 화이트로 지웠고, 목차를 보고 그 아래 소목차를 떠올리고, 소목차를 보고 내용을 떠올려 교재 본문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례집, 핸드북 회독 방법

사례집과 핸드북은 초반에는 답도 다 읽으면서 내용을 익혔지만, 3회독째 부터는 문제만 띄워놓고 목차와 키워드를 직접잡아 보고, 놓친 키워드나 목차를 형광펜으로 따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독했습니다.

펜으로 쓰면 생각보다 쓰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지루해지기 쉬워서 저는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거의 하나의 답안지를 키워드 위주로 온전히 쓰는데에도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아 좋았습니다.



사례집의 제목은 문제를 푸는데 힌트가 될 수 있어서 지웠고, 전체 페이지 목록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회독수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답이나 목차를 빼먹은 경우 문제 위에 색 띠를 그어주었습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기득 때에는 **사례집(모든문제)-> 핸드북 (모든문제)-> 사례집(틀린문제만)->핸드북(틀린문제만)의 드릴로** 학습했습니다.

【암기 방법】

동차시기

두문자도 익숙하지 않은 때라 교재에 있는 두문자를 보며 풀이하는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두문자를 모두 통합 교재 번호와 함께 정리하여 메모지에 써두고 집에 오가는 길에 내용을 떠올리며 암기했습니다.

전년도 GS를 강사님이 작두타셨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적중률이 높았다고 들어서 GS를 이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꼼꼼히 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동차 시기에는 GS보다는 사례집 덕이 컸던 것 같은데 다행히 사례집도 직접 써보는 방식으로 회독과 암기를 병행했던 터라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득시기

두문자는 모두 외운 상태였고, 목차만 보고 내용을 떠올리는 백지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암기했습니다. 백지복습이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생각이 들었고, 먼저 합격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통합 **‘기본서’의 목차를 그대로** 바르는 것이 점수가 잘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았기에 사례집에 기본서 목차를 추가해서 암기하려했습니다.

【조문 암기】

Quizlet 앱에 들어가면 법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 민사소송법 조문 카드를 많이 만들어두셨습니다. 주말에 30분정도는 투자해서 민사소송법 조문을 외웠습니다. 동차 때는 내용이 급해서 조문을 잘 작성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기계적 암기덕에 기득 때는 조문을 꼼꼼히 쓸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점수: 54.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박형준 변리사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 교재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모두 박형준 변리사님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수강한 GS】

24년 1~2월	24년 3월 기초GS +, GS A	24년 4월	24년 5월 GS B	25년 6월
25년 1~2월	25년 3월 GS A	25년 4월	25년 5월 GS B	25년 6월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대체적으로 기득이랑 붙어서 이겨야하는데 공부량이 1년치가 차이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기초GS플러스가 유명해서 들으러 갔다가 강남까지 오가는게 힘들어서 인강으로 바꾸고, 먼저 나아가겠다며 GS A형도 병행하는 등 깊이를 찔지 않고 브로드하게 나아가다가 20p쓰고 과락(39.66)을 맞았습니다.

▪ 기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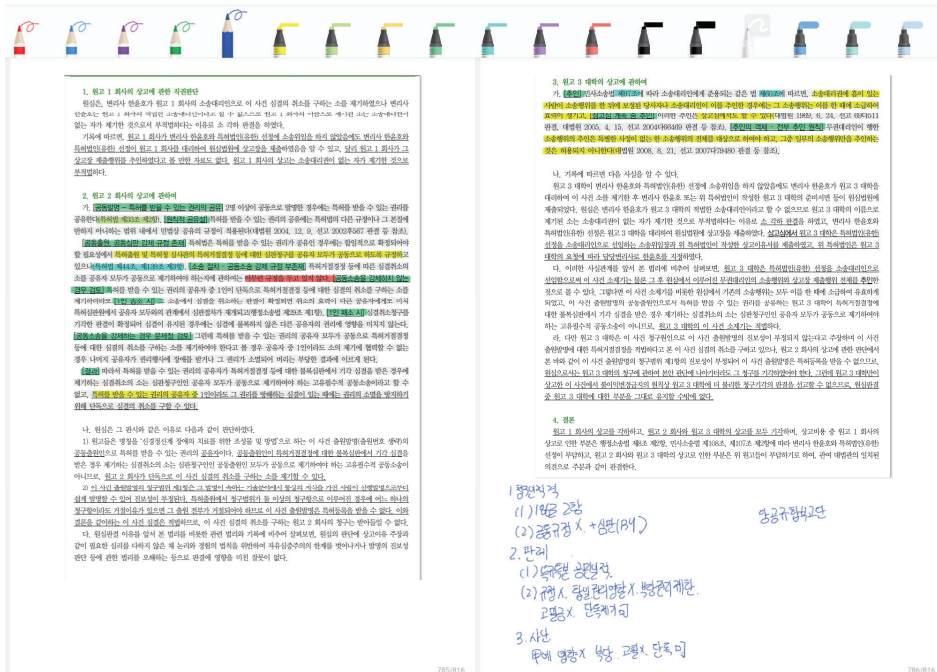
준특허 교재가 좋아서 강의 없어도 혼자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강의를 열심히 듣지 않은 것이 동차 패인이라 생각하고, 기득용 기본강의와 판례, 사례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득용 기본강의도 좋지만 판례 사례 강의가 각각 사안포섭 방법과 목차를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례를 쪼개서 논리 흐름대로 1->2->3의 방식으로 설명해주시는데 이를 그대로 사안포섭 목차에 따르면 되겠다는 생각에 판례마다 알려주신 내용대로 사안포섭 목차를 적어두고 암기했습니다.

📌📌📌📌

특허 판례집 2판



판례집 회독시에는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목차를 잡고 어떤 키워드를 살릴것인지 미리 암기했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의 두문자를 모두 뽑아 **두문자 정리본**을 만들고, 목차도 함께 정리하여 준특허 미니보다 더 정리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문자를 떠올리는데에 그치다가 **목차 준위를 올려가며 대목차만 보고 중, 소목차 및 관련 두문자를 모두 떠올릴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판례집은 사례마다 나오는 판례가 대동소이했습니다. 다만 같은 진보성 판례라도 사후고찰 언급 여부의 차이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사후고찰을 언급한 판례를 립스틱, 냉장고, 등으로 판례 키워드로 외워버렸습니다. 정리하여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한 사례에 어떤 판례를 써야 할지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사례집은 소설문 별로 목차를 잘못 잡은 것을 표시해가며 회독했습니다. 목차 연습용으로만 이용했고, 회독하다보니 목차가 외워져서 회독의 의미가 떨어졌기에 기본서와 판례집에 비해 많은 회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서, 판례집 매일 1시간정도, 판례집 회독하다 지겨울때쯤 판례집 대신 사례집을 회독했습니다.

【암기 방법】

기본서의 두문자 정리본을 핸드폰에 옮겨 시간 날때마다 보며 암기했습니다.

판례집은 암기보다 스토리를 이해하려 하면 자연스럽게 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GS의 목차 중 좋은것이나/ 같은 판례의 여러 버전 문제들 중 목차를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판례집에 추가로 기재하여 판례집 회독시에 함께 암기하려했습니다.

【사안 포섭 방법】

상표도 사안포섭이 중요하지만 상표는 사안포섭을 뭉텅이? 느낌으로 한다면 특하는 사안을 단계별로 쪼개서 1이고, 2이므로 3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안포섭을 소목차를 활용해 분설하여 논리구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선배 변리사님께서 저에게 사안포섭은 나누는만큼 점수가 들어간다 하셨는데 맞는말 같습니다.

저도 시험에서 학설은 당연히 날리고, 판례를 대법원 판례라 할지라도 조금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안포섭 분설에 신경썼습니다.

-상표법- <점수: 56.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의 판례강의 수강했습니다.(기득)

사례강의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의 GS가 좀 더 학술적이고 심도있는 느낌이 들고, 사안포섭 디테일도 좋아서 동차, 기득 모두 한경훈 변리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 교재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기득때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판례집,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수강한 GS】

24년 1~2월	24년 3월 GS A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GS B
25년 1~2월	25년 3월 GS A	25년 4월	25년 5월 GS B	25년 6월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타학원 강사님 교재가 1,2차 연계가 되어있어서 별 고민없이 기본강의를 선택했습니다.

GS는 답안지 스타일이 한경훈 변리사님과 더 잘 맞는 것 같아 한경훈 변리사님의 GS를 수강했습니다.

55점 맞았습니다.

▪ 기득 기간

동차때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기득 때는 깊이있는 통찰로 다가와 판례 강의를 수강하고, 판례 집과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판례집은 기존에 제가 보던 타 학원 강사님의 판례집에 없는 부분을 찾아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고, 사례집은 특허와 같이 시간재고 풀기보다 **변리사님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셨는지(특히 사안포섭) 보는데 중점**을 두어 보았습니다.

【회독 방법】

마찬가지로 대목차를 보고 중,소목차를 떠올리고, 두문자를 나열해보는 백지복습 방식으로 회독했습니다.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검정색으로 빈칸을 뚫어놓고 떠올리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판례집은 특허와 달리 단계적 논리의 흐름보다는 **판례가 어떤 점을 문제상고 포섭했는지**를 보고 문제에 이 부분의 내용이 나왔을 때 잘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며 회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례집의 한경훈 변리사님의 사안포섭 답안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암기 방법】

세 과목 중에 두문자를 제일 많이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상표적 사용 판례와 같은 경우 상태주의경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동차때는 그것만 외우다가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후렴 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기득은 **판례를 두문자 위주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상태주의경 실거식 등의 저만의 두문자를 붙여 길게 외워갔습니다.

【사안포섭 방법】

문제에서 주어진 재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판례를 한번 더 그대로 적는다는 느낌**으로 사안포섭을 하면 고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표가 전에 비해 높은 점수를 주면서 천하제일 상표대회로 바꾸자는 말도 나오는 만큼 판례집 회독을 열심히 해서 판례와 가깝게 키워드 살려가며 사안포섭하시고, 여유가 되시거나, 중요한 판례가 있다면 원심에서 문제된 부분도 함께 찍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점수: 59.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 교재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서를 사용했습니다.

【수강한 GS】

24년 1~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	-	-	기초 GS	-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	-	-	-

【시기별 공부】

▪ 등차 기간

기본강의 수강, 기본서를 하루 30분 정도 회독했습니다.

기초GS부터 기출문제가 있길래 실전은 안 들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기초GS 1번문제 풀다가 조문 베끼기 같아서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풀답안은 1회차 1번문제 하나 빼고 쓴 적이 없습니다.

60점 획득했습니다.

▪ 기득 기간

기본서 하루 30분 회독했습니다.

최신판례를 알기위해 실전 GS의 최신 판례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수강했습니다.

풀답안은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회독 방법】

양이 적고, 기본서 비중의 대부분도 조문이라 그냥 이런 내용이 이 썸 있구나 정도만 느끼면서 회독했습니다.

판례 문구도 대부분 조문의 차용이라 이 조문을 베꼈구나만 알면서 회독했습니다.

【암기 방법】

법전을 보면 된다는 생각에 별도 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전을 시험전 달에 한번 보면서 조문의 위치정도는 숙지하려했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0페이지	약 23자	설문 사이에만 빈 줄을 두었습니다.	세로폭의 9/10 정도
특허법	20페이지			
상표법	20페이지			
선택과목	20페이지			

【글씨 노하우】

글씨는 평균 정도로 주변에서 자음을 크게 써라, 일부분을 줄에 붙여라 등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하나 신경쓰는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그냥 쓰던대로 썼습니다. 가독성 점수는 gs에서 항상 4 나왔습니다.

주변에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깔끔해보이거만 하면 글씨체 자체는 크게 상관 없는 것 같기도합니다.

【사용한 펜】

제트스트림 펜대에 에너겔 0.7 썼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동차 때는 그럴 여력이 없어 목차 잡기 없이 바로 답안을 작성했는데, 기득 때는 **설문을 모두 읽고, 목차를 잡았습니다.**

시간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겹치는 논점 확인 가능하고, 강약조절도 가능하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 목차 먼저 잡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로 조문-> 판례 -> 사안인데 동차때에 비해 조문을 충실히 썼습니다. 특히 이번 상표 1번과 같은 경우 119조 1항 2호 판례를 쓸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판례보다 조문을 쓰고, 판례는 사안에 녹여서 사안포섭을 충실히** 하니 그렇게 점수에 손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p만 넘으면 고득점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16-17도 내용이 좋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 전략】

특허: 판례의 논리적 단계의 흐름에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상표: 실제 사례에서 판례가 문제삼은 부분을 저도 그대로 문제 삼으려했습니다.

민소: 통합의 목차를 그대로 바를 생각으로 암기했습니다.

저작: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만 하고 그 외 다른 과목 공부에 방해받지 않게 하려했습니다.

【GS등수 연관성】

GS A 특, 상은 한자릿수 등수에서 40%대 까지 나와서 평균 18% 정도에 있었고, 민소는 평균 10%대, GS B형은 모두 평균 10%대에 있었으며 변동폭도 적었습니다. 다만 제 주변을 보면 극상위권이나 극하위권이면 조금 안심/위기감 느낄 여지가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시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7시부터 10시까지, 시험 전 일주일은 7시부터 9시 반, 쉬는 시간은 저녁 1시간 30분(운동 30분 추가) 외 없었습니다.

7시~10시 : gs 스터디

10시~12시: 특허 기본서

12시~ 1시: 특허 판례집 가끔 물리면 사례집

1시~ 2시 : 상표 기본서 -> 판례집 1회독씩 번갈아가며

2시~ 4시: 민소 기본서 (빈칸뚫기, 목차보고 내용떠올리기 등등 다양하게 회독)

5시 반~8시: 민소 기본서

8시~10시: 민소 사례집-> 핸드북 1회독씩 번갈아가며

【체력/멘탈 관리】

기득 비시즌에는 하루 1시간정도 헬스를 하거나 주말에 수영 가거나 하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다들 힘들다는 생각에 혼자 힘든것보다 좀 덜 힘들 수 있었습니다.

【공부 장소】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아침 7시에 2시간 딱 시작하는 gs 스터디를 했습니다. 아침에 잠 깨기도 좋고 생활습관도 잡혀서 추천합니다. 2시간 gs 쓰고 1시간 답 확인, 돌려보기를 3명이서 진행했습니다.

스터디원의 지적도 정말 좋고, 공부 동무도 되어서 좋았습니다.

【휴식】

동차: 공부량에 스트레스 받을 틈도 없었고 1차 합격뽕이 있기도해서 마찬가지로 일주일 3-4시간 쉰 것 같습니다.

기득: 비시즌에는 동차후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에 12월까지 주말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 뒤로는 일주일에 6시간 쉬었습니다.

【윌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특허법- 박형준 변리사님 판례와 판례집이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정말 많이 높여주니 추천합니다.

상표법- 한경훈 변리사님 GS 강의와 사례집을 보며 사안 포섭하는 디테일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이창한 강사님 기본 강의와 심화강의는 보충자료로 도식화도 잘 되어 있고, 수강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을 잘 알고 설명해주시므로 양도 많고 어려운 과목 시작을 이창한 강사님 강의로 잘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2차 민사소송법 과목의 고득점 비결】

동차 때보다 조문을 충실하게 썼으며, **통합 ‘기본서’의 목차를 그대로 바른 것이** 고득점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 목차를 꼭 따로 두었고, 사안포섭은 3-4줄 정도, 결론 별도로 3줄 정도로 하였습니다.

1번 3번 문항보다 2번 4번 문항에서 고득점을 했는데 남들과 달랐을 법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2-(1) 적법성을 다루는 것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신거에 더해 수계신청한 법원이 맞는 지(통합 파란박스 사례와 동일 목차) 등의 적법성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도 적었는데 거기서 점수가 들어간 것 같은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통합 목차를 그대로 써서 다양한 점을 다루고 들어간 것 뿐이라 기타 다른 고득점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수적인 논점(논해질수 있으나 문제 자체에서 결론에 영향은 없는 논점)을 적을 경우에는 3줄 정도로 적어 점수가 1점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되게 했습니다.

기타 다른 논점들은 너무 길게 쓰면 다양한 논점을 다루지 못할 것 같아 한 목차당 4줄 정도, 학, 판, 검의 경우 각각 점수가 확실히 들어갈 것 같은 경우에만 길게 썼습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무슨 사건에서 법원은 뭘을 이유로 어떻게 판단하였다는의 프레임**으로 어떤 사건에서 문제되었는지를 꼭 써주었습니다.

마치며

수험기간 내내 미래 불확실성, 끊임없는 진도 압박 등에 지치고, 오가는 길의 신호등 빨간 불이 주는 찰나의 휴식에 감사하며 진짜 이게 사람 사는건가 싶었는데, 돌아보니 그렇게 하는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힘드신 만큼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남동생, 친척분들께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보다 절 더 믿어주고 한결같이 옆에 있어준 남자친구에게도 수험기간 덕분에 웃으며 보낼 수 있었다고 전하고 싶고,

할 수 있다 응원해주시고, 답안지 정말 많이 봐주신 학교 선배 변리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한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